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中, 제20차 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 건설 성과 발표

- 중국 정부는 제20차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샤오캉 사회(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성과를 발표
  - 중국은 2020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액(GDP)이 100조 위안을 돌파(101조 6,000억 위안; 약 2경 109조 원)하며 글로벌 2대 경제주체 지위를 유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섬. 또한 중등소득 인구가 4억 명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산층 인구를 형성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엔겔지수가 각각 29.2%, 32.7%로 하락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9,899만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GDP 연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동 기간 글로벌(2.6%)와 개발도상국(3.7%)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30%를 넘었음
  - 한편 지난 10년간 의·식·주·교통·교육·의료·양로 등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2,000여개의 개혁방안을 출범하였고, 선후하여 2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였으며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한 항목은 각각 31개, 27개로 축소됨

자료원 : 베이징청년보

[http://epaper.yinet.com/html/2022-10/16/content\\_406493.htm?div=0](http://epaper.yinet.com/html/2022-10/16/content_406493.htm?div=0)

## 2 中, 1~9월 대외무역규모 8.7%(달러화 기준)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월 누적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한 4조 7,520억 달러이고, 이 중 수출은 12.5% 증가한 2조 6,986억 달러, 수입은 4.1% 증가한 2조 534억 달러임
  - 對아세안 수출입은 13.8% 증가한 7,178억 달러, 수출은 20.6% 증가한 4,163억 달러, 수입은 5.7% 증가한 3,015억 달러임

- 對EU 수출입은 7.9% 증가한 6,459억 달러, 수출은 16.9% 증가한 4,287억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2,172억 달러임
- 對미국 수출입은 6.9% 증가한 5,804억 달러, 수출은 8.9% 증가한 4,479억 달러, 수입은 0.5% 증가한 1,325억 달러임
- 對한국 수출입은 6.0% 증가한 2,770억 달러, 수출은 15.3% 증가한 1,226억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1,544억 달러임
- 對일본 수출입은 1.4% 감소한 2,707억 달러, 수출은 6.5% 증가한 1,295억 달러, 수입은 7.6% 감소한 1,412억 달러임
- 對타이완 수출입은 3.2% 증가한 2,460억 달러, 수출은 10.6% 증가한 631억 달러, 수입은 0.8% 증가한 1,829억 달러임
- 對홍콩 수출입은 11.8% 감소한 2,246억 달러, 수출은 11.3% 감소한 2,191억 달러, 수입은 27.5% 감소한 55억 달러임
- 9월 당월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5,608억 달러, 이 중 수출은 5.7% 증가한 3,228억 달러, 수입은 0.3% 증가한 2,380억 달러로 나타남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635670/index.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zfxxgk/2799825/302274/302275/4635653/index.html>

### 3 中, 1~9월 자동차 수출량 212만 대 달성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5.5% 증가한 212만 대로 지난해 전년 수출량을 추월하였음. 8월 당월 수출이 30.8만 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9월 수출이 또다시 30만 대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대비 73.8%의 증가율을 보였음
- 1~9월 승용차 수출은 60.1% 증가한 170만 대이고, 상용차 수출은 39.2% 증가한 42만 대임. 한편 신에너지차 수출은 100% 이상 증가한 38.9만 대로 집계됨
- 신에너지차 수출 호황으로 지난해 유럽과 북미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각각 전년 대비 200%, 100% 이상 증가하였음

- 9월 중국 본토 브랜드 승용차 판매 비중이 50%를 달성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1~9월 중국 본토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은 26.6% 증가한 816만 대로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48%를 차지했고, 9월 당월 판매량은 40.8% 증가한 117만 대로 전체의 50%로 상승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중국자동차공업협회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0/21/content\\_25944831.htm](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10/21/content_25944831.htm)

[http://m.haiwainet.cn/middle/3541083/2022/1023/content\\_32502671\\_1.html](http://m.haiwainet.cn/middle/3541083/2022/1023/content_32502671_1.html)

## 4 中, 아동복 시장규모 꾸준한 성장세

- 영유아용품 전시회 개최기관인 CBME가 발표한 '2022년 중국 아동복 및 아동신발 소비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아동복 시장규모는 2021년 2,869억 위안(약 57조 원)에서 2024년 4,000억 위안(약 79조 원)으로 성장하고 2025년 4,738억 위안(약 94조 원)에 달할 전망
- 현재 아동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점유율이 분산되어 있으며, 점차 많은 영유아용품 브랜드가 아동복 시장에 진출하면서 신에 브랜드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음
- 스포츠용품 브랜드 '터부(Xtep)'는 2022년 상반기 아동복 사업부문 매출 증가율이 83.7%를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15%에 근접했고 아동복 매장수를 1,480개로 확장하였음. '361°'의 아동복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7.1% 증가한 6.8억 위안(약 1,34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8.7%를 차지함
- 아동복 브랜드 대리판매 업체도 자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9월 아동복 브랜드 대리점인 '자만의류(嘉曼服饰)'가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최근 나이키(Nike), 조던(Jordan), 컨버스(Converse) 등 브랜드 아동복 제품을 대리유통판매하는 '융싱동룬의류(永兴东润服饰)'도 상장을 준비 중임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10/202210161541171017.html>

## 5 中, 스마트 도어락·카메라 등 스마트가전 인기 상승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스마트가전 시장규모가 2016년의 2,000억 위안(약 40조원)에서 현재 5,000억 위안(약 99조원)으로 성장함
- 스마트 도어락 분야는 2018~2021년 관련 산업분야 생산액이 115억 위안(약 2.3조원)에서 130억 위안(약 2.6조원)으로 성장하였고 2022년에는 141억 위안(약 2.8조원)에 달할 전망

- 사물인터넷 기술의 보급으로 원격조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카메라 등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버산업 및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 도어락과 스마트 카메라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통비재경(同壁财经)

<https://app.myzaker.com/news/article.php?pk=6352165d8e9f09692707c570>

## 6 中, 최근 5년간 스마트 로봇 시장규모 연평균 22% 성장

- 최근 중국에서 스키 훈련을 도와주는 스키 로봇, 커피 서비스 로봇, 각종 재활 로봇 등 서비스형 로봇들이 출현하면서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중국전자학회에서 발표한 '중국 로봇산업 발전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중국의 로봇 시장규모는 연평균 22%씩 성장하는 추세로 교육, 의료건강, 응급구조 등 영역에서 응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의 생활자립, 상해 예방 등과 관련된 노인용 로봇 수요도 증가세로, 더 많은 노인용 로봇 출시를 위해 국무원은 올해 초 '14차 5개년 계획 국가 실버사업 발전 및 실버서비스 체계 계획'을 발표하여 스마트 음성대화, 스마트 조작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 가정용 로봇 등 노인용 제품의 스마트 수준과 실용성, 안전성을 제고시킬 것을 제안했음
- 한편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부처는 '14차 5개년 로봇산업 발전계획'에서 2025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로봇기술 혁신기지, 첨단 제조업의 로봇기술 응용기지로 부상시키고 2035년까지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개선할 계획을 발표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www.ce.cn/xwzx/gnsz/gdxw/202210/24/t20221024\\_38189108.shtml](http://www.ce.cn/xwzx/gnsz/gdxw/202210/24/t20221024_38189108.shtml)

## 7 中, 10월 중순 유통분야 주요 생산재 가격 변동 상황

-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국 유통 분야 9대 품목의 50종 주요 생산재 시장가격 모니터링 상황을 발표하였으며, 10월 중순 가격을 10월 상순과 비교할 때 23종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24종은 하락했으며 3종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음
- 9대 품목은 철금속, 비철금속, 화학공업제품, 석유·천연가스, 석탄, 비금속 건축자재, 농산물, 농자재, 임업제품 등이며, 이 중 석탄은 무연탄을 제외하고 가격이 상승하였고 화학제품은 황산을 제외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기타 제품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임

- 석탄 중 무연탄 가격은 1.9% 하락한 톤당 1,940위안(약 38만 원)으로 나타났고, 점결탄(철강 생산에 활용) 가격은 2.9% 상승한 2,454위안(약 49만 원)으로 집계됨
- 화학제품 중 황산 가격 상승폭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메틸알코올, 벤젠, 폴리에틸 등은 가격이 각각 6.9%, 5.2%, 7.0% 하락세를 보였음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zxfb./202210/t20221024\\_1889503.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210/t20221024_1889503.html)

## 8 中 외자유치 수요, '가공공장' 운영에서 'R&D센터' 건설로 전환

- 중국의 외자유치는 테스트 단계(위탁가공, 녹다운(부품조립)방식, 수탁가공, 보상무역), 탐색단계(중국 제조, '세계 공장' 등 제조업 발전)에 거쳐 전환단계(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발전 요구에 부합)로 진입하였음
- 올해 1~8월 중국의 외자사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8,927억 위안(약 176조원)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사용액이 33.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첨단기술 제조업과 첨단기술 서비스업의 외자사용액이 각각 43.1%, 31% 증가세를 보임
-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유치가 증가하는 동시에 기술, 품질, 품목 등이 중국의 외자유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과 프로젝트는 중국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음. 이로써 '외자기업 철수'의 원인은 중국이 외자유치 정책이 변화를 가져와 가공공장 유치보다 실험실(R&D센터) 건설을 선호하는데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칩 생산업체 쉐강은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에 R&D 센터, 선전시에 최초의 글로벌 혁신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연구개발 혁신센터도 설립함. 스나이더(施耐德) 전기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시안에 4대 R&D 센터를 설립하였고 지이멘스는 쑤저우 중국본사를 중국 및 동남아까지 커버하는 역할로 격상시키고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

자료원 : ZAKER

<https://app.myzaker.com/news/article.php?pk=635260b78e9f0977d137e9f3>